

## 상트 페테르부르크 건축기행

공과대학 윤 장 섭

2006년 7월초에 소우회(筱愚會: 본인 지도로 박사, 석사가 된 사람들 연구회)의 회원과 가족 및 친지 27명이 함께 러시아 및 핀란드 건축시찰여행을 떠나서 처음에 방문한 도시가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이었다.

상트 페테르부르크(구 레닌그라드)는 1703년 5월 러시아 표트르 대제(大帝)가 스웨덴의 침략을 막기 위해 토끼 섬에서 목조교회를 기공함과 동시에 페드로파 블로프스크 요새를 건설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오늘날과 같은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트르 대제는 스웨덴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핀란드 만 서쪽에 있는 발트 해로 진출하기 위하여, 1712년 러시아 수도를 모스크바에서 이 도시로 옮겼으며 18~19세기에 궁전들과 성당들을 건설하였다.

2006년 7월 3일(월요일) 아침 우리 일행은 상트 페테르부르크 서쪽 30km 되는 곳 핀란드 만 남쪽에 위치한 페트로드 보레츠를 찾아가 보았다. 이 이름은 '표트르의 궁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표트르 대제가 1714년 이곳에 여름에 거처할 '여름 대궁전'을 건설하였다. 페트로드 보레츠는 핀란드 만에서부터 점차 높아지는 테라스 모양의 지형을 이용하여 '아랫 공원'과 '윗 공원'으로 나누어져서 건설되었으며 총면적 1,000ha의 넓은 면적을 갖고 있다. '아랫 공원'과 '윗 공원' 사이에는 대궁전이 위치하고 있으며 '아랫 공원'과 '윗 공원'에는 140개의 분수와 250개의 조각상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아래, 위 공원에 설치된 분수들은 윗 공원 후면에 있는 바비곤 언덕(해발 100m)의 수원(水源)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최대 건축물은 표트르 대제가 여름에 거처했던 대궁전이다. 정면은

길이 300m, 높이 3층으로 장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밝은 황금색 벽면에는 백색의 소상(塑像)들로 장식되어 있어서 인상적이었다. 대궁전 남쪽에 있는 ‘윗 공원’은 규모가 작으나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의 정원을 모방한 것이었다. 우리 일행은 대궁전 정면 앞에 도착하여 우선 ‘아랫 공원’ 쪽으로 내려가서 대궁전 앞면 밑에 위치한 대폭포와 삼손의 동상을 돌아보았다. 대폭포는 좌우로 나누어져서 7단의 계단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으며, 그 밑에 폭포수가 모이는 풀 중앙에는 높이 3.3m의 삼손 동상이 사자의 입을 찢는 모습을 하고 금빛 찬란하게 서 있었다. 사자의 입에서는 분수가 솟아서 높이 20m로 뿜어 올리는 광경을 가까이 가서 바라보니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포트르 대제가 구약성경에 기록된 영웅 삼손의 동상을 이곳에 설치한 것은 스웨덴과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스웨덴군을 격파하여 승리한 날이 바로 ‘삼손’의 기념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면적이 102ha가 되는 ‘아랫 공원’에는 ‘장난꾸러기 분수’와 ‘우산 분수’ 등 재미있는 형태의 분수들이 많았으며,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에 등장하는 넵툰, 비너스, 머큐리, 쥬피터, 님프 등 수많은 신들의 조각상들이 늘어서 260개가 된다고 한다. 삼손 동상 북쪽 600m 되는 곳에 핀란드 만으로 돌출된 선착장에 가서 핀란드 만의 경치와 ‘아랫 공원’의 전체 경관을 조망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포트르 대제 당시에 초대된 손님들은 배를 타고 이곳 선착장에 도착하여 ‘아랫 공원’을 감상한 다음에 대궁전에 도달하여 포트르 대제의 영접을 받았다고 한다. 우리 일행은 선착장에서 나와 ‘아랫 공원’ 서쪽에 위치한 몬프레지르 궁전을 돌아본 다음에 장난꾸러기 분수를 지나 넓은 길 좌우에 늘어선 보리수와 자작나무의 시원한 그늘 밑을 잠시 동안 산책하였다.

오후에 우리 일행은 예카테리나 궁전을 가 보았다. 이 궁전은 예카테리나 여제(女帝) 명령으로 1756년 완성되었으며 러시아 바로크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이다. 궁전 건물의 정면 형태는 아름다웠으며 부설된 교회의 러시아 비잔틴 양식으로 만든 금색 빛나는 작은 발버스(bulbous: 구근형, 球根形) 돔들의 모습은 매우 특이하였다. 궁전 내부의 각 방은 색깔에 따라 ‘붉은 기둥의 방’, ‘초록 기둥의 방’ 등으로 지칭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 ‘호박의 방’은 내부 장식이 모두 보석인 호박석을 사용하여서 매우 경이롭게 느껴졌다. 이 밖에 ‘왕관의 방’은 내부가 전부

금박으로 꾸며져서 마치 황금 속에 파묻힌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였다.

2006년 7월 4일(화요일) 아침에 우리 일행은 에르미타주 미술관을 돌아보았다. 이 미술관은 역대 황제가 살았던 ‘겨울 궁전’과 그 좌우에 서있는 4개의 건물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1,050개의 방이 있으며 총면적이 4만 6천m<sup>2</sup>이다. 프랑스 루브르 미술관, 영국 대영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곳이며, 회화, 조각상, 발굴품 등의 소장품이 300만 점에 달한다고 한다. ‘겨울 궁전’(1754~1762) 내부의 중앙 계단은 웅장하였으며, 표트르 대제의 왕좌실,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대왕좌실, 황실자녀가 공부하던 방들이 있었고 휘황찬란한 궁전 내부 장식은 러시아의 특색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전시품들을 크게 나누면 1층에는 원시 문화, 중앙아시아 문화, 이집트 문화, 바빌론·앗시리아 문화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2층에는 러시아 문화, 19세기까지의 서유럽 예술, 제2차 대전의 전리품 등이 전시되었으며, 3층에는 근대부터 현대까지의 서유럽 예술, 동양 문화, 비잔틴 문화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오후에는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요새와 그 내부에 서 있는 성당을 찾아가 보았다. 네바(Neva) 강의 폭이 가장 넓은 부분 델타 지대에는 토끼 섬이라 칭하는 작은 섬이 있다. 이 섬에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중심이 된 이 요새가 건설되었다. 이곳은 표트르 대제가 스웨덴 군대의 침입을 방어하고 러시아를 수호하기 위해 1706년부터 35년동안 건설한 요새이다. 요새를 둘러싼 두꺼운 벽(높이 12m, 폭 2.5~4m)에는 5개의 성문이 설치되었으며, 요새 중앙에는 성 베드로와 성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가 건설되어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요새라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성당 내부에는 표트르 대제부터 알렉산드르 3세(1894년 사망)까지 역대 황제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

다음에 우리 일행은 성 이삭 대성당을 가 보았다. 네바 강에 면해 있는 데키브리스트 광장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대성당은 러시아 정교회(Orthodox Church)이며 금색으로 빛나는 큰 돔이 높이 솟아 있다.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돔을 갖고 있으며, 건물 평면은 길이 111.3m, 폭 97.6m로 1만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고, 높이 101.5m로 30층의 빌딩과 같아서 멀리서도 금색으로 빛나는 돔이 잘 보인다. 이 대성당은 1818년 프랑스에서 온 몽페란드(Moontferrand)가 설계하여

40년 걸려서 완공되었다. 이 공사에는 40만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다고 하며, 습지대에 건설하게 되어서 1만 3천 개의 말뚝을 박고 그 위에 화강암과 석회암을 깔아 기초를 만들었으며, 돛 표면에는 100kg 이상의 금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 대성당은 러시아 고전주의 건축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다.

내부 공간은 장방형의 평면이지만 전후면에 1열의 주랑(柱廊)이 서 있으며, 좌우측면 중앙에는 3열의 주랑이 돌출되어 있어서 1층 평면은 십자형을 나타내고 있다. 주랑에는 94개의 코린티안식 오더의 기둥이 늘어서 있어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성당 내부에는 대리석과 반암, 벽옥 등의 40여 가지 다양한 석재가 사용되었으며, 성서의 내용과 성인(聖人)들을 묘사한 150점의 회화와 조각물들이 장식되어 있었다. 특히 제실(祭室) 앞에 서 있는 이코노스타시스(iconostasis, 성장벽: 聖障壁)는 폭 45m, 높이 25m로 되어 있으며, 성부, 성모자(聖母子), 구약의 예언자, 성사도, 그리스도의 사적 등을 묘사한 이콘(icon, 성화)들이 배치되어 특이한 경관을 이루고 있었다.

성 이삭 대성당 서북쪽에는 네바 강에 연접하여서 데카브리스트 광장이 위치하고 있다. ‘데카브리스트’는 ‘12월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뜻이다. 1825년 12월 청년 귀족들이 러시아 제정(帝政) 시대의 전제정치와 농노(農奴)제도에 반대한 혁명을 이 광장에서 시도하였었다. 훗날 그들의 정신을 기념하여 광장 이름을 이같이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20세기에 들어서자 이 광장은 노동운동 및 공산혁명운동의 무대가 되었다. 1917년 10월 레닌이 주도한 공산주의 혁명운동은 이곳에서 시작되어 성공한 후에 볼셰비키 소련 정부는 수도를 모스크바로 옮겼으며, 도시 명칭을 ‘레닌그라드’로 바꾸게 되었다. 그러나 1991년 러시아 민주화 과정에서 다시 ‘상트 페테르부르크’라는 원래 도시명칭을 되찾게 되었다.

우리들은 데카브리스트 광장에서 성 이삭 대성당을 배경으로 하여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이 광장 끝에는 표트르 대제 동상인 ‘청동의 기사’가 말을 타고 있는 모습으로 위풍당당하게 서있다. 이동상을 바치고 있는 돌은 무게 1,600t의 단일석으로 되어 있으며 매우 특이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2006년 7월 5일(수요일) 오전에 우리 일행은 시내 중심 내부스키 가로에 면해 있는 러시아 미술관을 가 보았다. 중심의 건물은 구 미하일로프 궁전이며 1926년

완성되었고, 1989년 궁전건물 좌우에 있는 3개의 건물들을 연결하여 미술관을 만들었다. 이 미술관은 러시아 회화가 많이 수장되어 있으며, 10세기부터 현대까지 40만 점의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다. 고대 러시아 미술품, 18~19세기의 회화, 소비에트 시대의 작품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특히 이바노프의 <민중 앞에 나타난 예수>는 이 미술관의 대표작이며, 루블로푸의 <폼페이 최후의 날>이 감명을 주는 작품이었다.

오후에는 예술가의 묘지에 가보았다. 이곳은 도스트 예프스키가 출자하여 만든 공원묘지이며 상당히 잘 계획되어 있었고, 여러 예술가의 묘가 배치되어 있었다. 특히 도스트 예프스키, 차이코프스키 등의 묘지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우리 일행은 16시 30분 열차로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출발하여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로 향하였다.



성 이삭 대성당 앞에서 기념사진(앞줄 좌측 3, 4번째는 윤장섭 부부)